



지난 15일 중국 랴오닝성에서 있는 경북도와 랴오닝성간 우호도시 교류 협정 체결 후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철우, 통상 교류 강화 지역 경제 돌파구 찾는다

경북도, 랴오닝성 방문
우호교류 '협정' 체결
교류 협력 모델 구축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5일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리러청(李乐成) 랴오닝성 성장과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경북도와 랴오닝성은 지난해 10월 교류의향서 체결 이후 교류 방안을 계속 논의해오면서 우호교류 격상에 의견을 같이 해

이번 이 지사의 방문이 이뤄졌다. 협정은 통상, 투자, 산업, 과학기술 분야 관련 협력을 위주로 지역 기업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두 지역의 교류는 2019년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와 다렌시가 경북도에 구호물품을 보내며 위기 극복을 위한 힘을 보탰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핵심 지역

으로 동북 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랴오닝성 다렌시에 있는 미국 인텔의 낸드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한국과 경제 교류가 활발한 곳이다.

동북아 지역 간 상호교류를 위해 설립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6개국 81개 회원단체) 의장국(임기 2년)으로 지난해 10월 선출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리러청 성장은 "오늘 랴오닝성과 경북도가 상상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에 이철우 도지사님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양 지역이 협력의 잠재력이 큰 만큼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상생 발전하고 우정이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랴오닝성은 허난, 산시, 후난, 닝샤회족자치구, 지린성에 이어 경북도의 여섯 번째 중국 친구가 됐다"며 "랴오닝성과 통상 교류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고, 한·중 지방정부 간 모범적인 교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김미애 "홍준표 '한동훈 저격' 듣기 불편... 뒤에서 탄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품격을 지켜 달라며 쓴소리했다.

22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에 출마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16일 TV조선 유튜브 '강편치'에서 최근 홍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정치 아이돌이나'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어린애'라는 등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인(한동훈)이 온다고 했는가, 지난해 10월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우리 당이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판'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전 위원장을) 9회 말 2아웃에 등판시켰다"면서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다"고 했다.

또 "정치 경험이 없는 (한전 위원장을) 너무 빨리 등장시켜서 훌륭한 정치 자산인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빨리 주저앉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그렇기에 (선거 참패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다. 좋을 때는 다가만하다가 나빠지니까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동훈 책임론을 밀어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세웠고 전권을 돌면서 열심히 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홍 시장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말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여은 기자

도의회, 日 정부 규탄

경북도의회의 일본 정부를 향한 규탄 성명이 노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도의회는 16일 표한 외교청사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1월 가미카와 요코 외무성이 국회보고에서 행한 독도영유권 망언을 시작으로 3월 중학교 교과서 왜곡검정에 이어, 이 날 또다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경비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배한철(사진) 의장은 규탄성명을 통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단체장 일정



윤석준 동국구청장은 17일 오전 이양아트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회 동구 장애인재활 어울림체육대회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17일 오전 화원명곡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사)정인장애인복지회 체육대회에 참석한다.

환동해안 시대 청사진... 해오름 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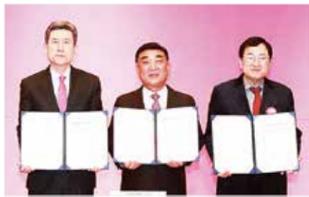
경주, 울산, 포항 '해오름동맹' 2024 도시발전 시행계획 추진

경주·울산·포항 3개 도시가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오름동맹 2024 도시발전 시행계획'은 경제·산업·해양, 교통·기반 인프라, 문화·관광, 방재·안전, 추진체계 및 제도 등 5대 분야 36개 사업을 담고 있다.

내용은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육성 및 단일 경제권 형성 △동일 생활권·경제권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



지난해 11월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오름동맹 정기회 모습. 사진 우측부터 주낙영 경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동맹 연계 △기능적·물리적 관광 연계성 강화 △재난·사고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간지능형 협력체계 구축 △해오름동맹 추진체계 구축과 제도 마련 등이 골짜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는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분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초광역 공동협

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시행계획과 공동협력사업을 본격 추진, 해오름동맹 강화 뿐 아니라 해오름동맹 3개 도시의 연계 협력으로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시대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해오름 친환경 첨단 산업벨트 조성처럼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비롯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협력사업들을 착실히 진행, 해오름동맹 3개 도시의 유기적 발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의 밑도있는 추진으로 해오름동맹 3개 도시 간 연계협력의 강화와 더 나아가 해오름동맹이 초광역 상생

모델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오름동맹은 2016년 6월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생활권역으로 묶인 경주·울산·포항 3개 도시의 행정협의체다. 동맹 결성 이후 지속적으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 산업·연구개발(R&D) 분야, 문화·관광·교류 분야, 도시기반(인프라) 분야, 농·축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기능적으로 연계성을 높여왔다.

지난해 해오름동맹 3개 도시는 울산연구원·경북연구원을 통해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연구'를 추진한 결과, 6개 분야 부분별 발전 전략 도출 및 47개 사업을 발굴, 이를 바탕으로 '해오름동맹 2024년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윤용찬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감감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일보 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 구독문의
053-253-0000



동구청, 한국여성인력개발원과 위·수탁 협약

동구청과 (사)한국여성인력개발원(대표 송화섭)은 지난 15일 동구여성문화공간 재계약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원은 향후 5년간 동구여성

문화공간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암동에 위치한 동구여성문화공간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등 여성의 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하여 동구 여성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신공항·신공항철도·로봇테스트필드 국비 신청

대구시, 내년 국비 전략 보고회 대통령 지원사업·사업구조 혁신 4조7113억 규모 국비사업 신청

대구시는 지난 15일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2025년 국비 전략 보고회(3차)'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2025년 국비 신청 목표액 4조 7000억 원을 위해 매달 국비전략 보고회를 개최해 미래 50년을 위한 신규사업과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해 왔다.

현재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해 준 교통인프라 개선과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사업 등을 집중 발굴해 3차 보고회 기준으로 당초 목표액을 초과한 4조 7113억 원 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비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 완성도, 국정과제 연계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총 2조 5768억) △신공항철도 건설(총 2조 7382억) △달빛빛철도 건설(총 4조 5158억) 등이다.

또한 산업구조 혁신으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총 1998억 원) △UAM 지역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총 480억 원) △플렉스 검사·검증 지원(총 215억 원)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총 200억 원) 등 전통산업에서 미래산업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해 줄 5대 신산업 관련 사업들의 국비 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먹는 물 문제와 악취 해소를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총 1조 원) △하수관로 정비(총 8974억 원) △오수간선관로 설치 사업(총 3734억 원)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외 △국립국립국립동기념관 건립(총 253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총 140억 원) △동성로 젊음의 거리 조성 사업(총 26억 원) 등 문화·관광 활성화와 여가시설 개선 등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도 빠짐없이 논의했다.

대구시는 4월 말까지 발굴된 사업들에 대한 국비 신청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8월 말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소통강화를 위해 '발로 뛰는 전략'을 확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비 전략 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신속집행 추진 상황 점검회의에서는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로서 1분기 전국 2위라는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및 2분기 소비·투자 집행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국비 확보는 발품으로 하는 것이다"며, "중앙부처 설득부터 기재부·국회 예산안 심의까지 무사히 완주해 핵심 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보건의료 취약지 공중보건의사 배치 완료

진료공백 해소 7명 신규·이동 배치

대구시는 지난 11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024년 대구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완료했다.

□ 공중보건의사 7명 신규 및 이동 배치

2024년 대구시 배치 공중보건의사는 전체 6명(의과 2, 치과 2, 한의과 2)으로 이 중 의과 2명, 치과 2명은 신규 배치, 한의과 2명은 전남 완도에서 대구시로 이동 배치됐다.

추가로 대구시 본청 소속의 치과 공중보건의 1명이 달성군으로 이동 배치됐다.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중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년간 근무하게 되며, 거주지 이전 등을 고려해 배치된 기관에서의 복무는 4월 15일(월)부터 시작한다.

□ 비대면 진료·순환진료 실시

대구시는 매년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출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배치인원 감소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

안을 시행 중이다.

군위군의 경우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 순환진료 실시는 물론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을 통해 취약지 진료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료 취약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비슬산 참꽃문화제서 중대재해예방 홍보

달성군, 안전문화 확산 노력

달성군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제28회 비슬산 참꽃문화제에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달성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해 국민안전 인식개선 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매해 전국 각지에서 오는 방문객들로 붐비는 지역대표 축제, 참꽃문화제가 개최된 지난 주말 동안 달성군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및 대구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대진단 홍보물

을 제공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다양하게 펼쳤다.

행사장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안전의식 UP 홍보 캠페인'과 함께 홍보용 물품을 제공하였고, 매월 4일 지정된 '스스로 안전점검의 날' 홍보와 우리 동네 안전을 함께 확인하는 '안전한 바퀴' 캠페인을 병행 추진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일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지속적인 안전의식 UP 캠페인을 통하여, 관내 사업장 곳곳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리게 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없애고, 안전한 달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부모교육사업 '바라봄학교' 호응

자녀 양육 올바른 지식 전달

수성구청이 운영하는 부모교육 사업 '수성구 부모성장교육, 바라봄학교'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작된 처음 시작한 '수성구 부모성장교육, 바라봄학교'는 자녀 생애주기와 행동특성, 가족 특성에 맞춘 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공백 없이 전달하는 사업이다.

나날이 높아지는 부모의 관심을 반영해 올해 자체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닮으며 성장한다는 사고에 입각,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미디어 과사용 아동 부모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성병원과 협업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예비부모교육'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최근 화두로 떠오른 주의력 결핍·도파민 과분비 영향을 살피는 교

육을 편성해 주제 다양화에 힘썼다. 배움과 치료의 연계를 위해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상담도 지원한다.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는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다회기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성구는 향후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성과공유회와 참여자 수기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바라봄가족캠프를 열어 자녀를 키우며 겪는 내적·외적 갈등과 고민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책자를 제작해 연말 성과공유회에서 선보인 바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어깨너머 교육이란 옛말이 있듯, 부모는 아이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수성구를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안전운행·유지보수 노후우 배워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5일 공사를 방문한 파나마메트로 방문단에게 3호선 모노레일의 안전운행과 유지보수 노후우 등 공사의 높은 기술력을 선보였다.

이번 방문단은 파나마메트로청장 역모르데가(Hector Ortega, 49세)와 운영기술국장, 현대

건설 김영호 현장소장 등 4명이다.

이들은 철곡차량기지에서 3호선 운용상황을 통해는 관제실과 차량의 주요부품을 분해하여 점검·시험하는 중정비 유지보수 현장을 참관했다. 이어 3호선 시승을 통해 열차운행 안전조치와 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공사의 모노레일 운영 노하우를 소개 받았다.

이번 방문은 공사가 국내 유일의 최장 모노레일 운영기관으로서 차별화된 정비기술과 운영 노하우로 '21년 12월, 현대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함께 파나마메트로 3호선(모노레일) 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파나마 현지의 건설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 공사는 모노레일 건설공사 설계자문, 구조물 시공과 인터페이스 검토, 시운전 노하

우, 운영자 교육 등 사업전반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컨설팅 사업 초기에는 최적의 설계 및 시공안을 공유했으며, 현재까지 대구 3호선 시공사례, 운영 매뉴얼 및 공정테스트 적용사례 등 각 분야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 공사의 유류장비인 건축기계추진자를 파나마 현지에 대어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이번 파나마메트로청장의 방문을 통해 3호선 모노레일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향후 파나마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모노레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분야에도 진출을 모색하는 등 해외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칠곡경대정신건강의학과의원 군위 아동학대 전담의료 지정

군위군은 지난 12일 학대피해 아동 및 보호대상 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칠곡경대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위기아동 조기 발굴뿐만 아니라 의료자문 및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료기관이다.

칠곡경대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2018년에 개소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를 운영 중이다. 김진일 군수는 "학대피해아동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과 협력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군위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달성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달성군은 2028년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이번 달 2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 통당 600원이었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명서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할 때 전국 어디서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바로 발급이 가

능하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서명하여야지만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기에 위변조 및 대타 발급 시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보다 더욱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달성군 종합민원관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을 알리고, 증명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주에 열린 비슬산 참꽃문화제와 연계하여 본 제도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 받고 있는 관내 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공문 및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com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57-9000 경영지원국 053-257-5000 광고국 053-257-0800 유통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5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57-0700 정경부 053-253-0068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론도 띄운다” 경북도, 산림 불법행위 단속

경북도가 봄철을 맞아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한다. 단속은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산불 발생 위험 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 감시단이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임산통제

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거나 조경용 수목을 불법으로 캐내는 행위 등이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화기를 갖고 입산하거나 산림에서 불을 피우고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심규진, “홍준표 좌파 2중대·제2 조국수홍” 맹폭…

‘73년생 한동훈’ 저자 심 교수尹정부 망했다고 저급한 인사잔치라도 난 듯 경망스러운 좌파 2중대 짓 하는 홍준표 어떻게 보수 운명 맡기나…



‘73년생 한동훈’의 저자인 심규진(46·사진) 스페인 IE 대학교 교수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망했다고 잔치라도 난 듯 경망스러운 언행을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심 교수는 16일 SNS를 통해 홍 시장이 “선거도 끝났으니 송영길 대표를 풀어줘야 한다. 죽을죄를 지는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며 “이는 제2의 조국수홍이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내가 홍준표라면, 정 한동훈 밀치고 대선 나가고 싶다면 ‘이준석 무리가 또 제2의 탄핵을 획책하고 있다. 나는 탄핵으로 무너진 우리 당을 지켰듯이 우리가 만든 윤

석열 대통령 지키겠다. 좌파들을 당에 끌어들이는 한동훈을 용서치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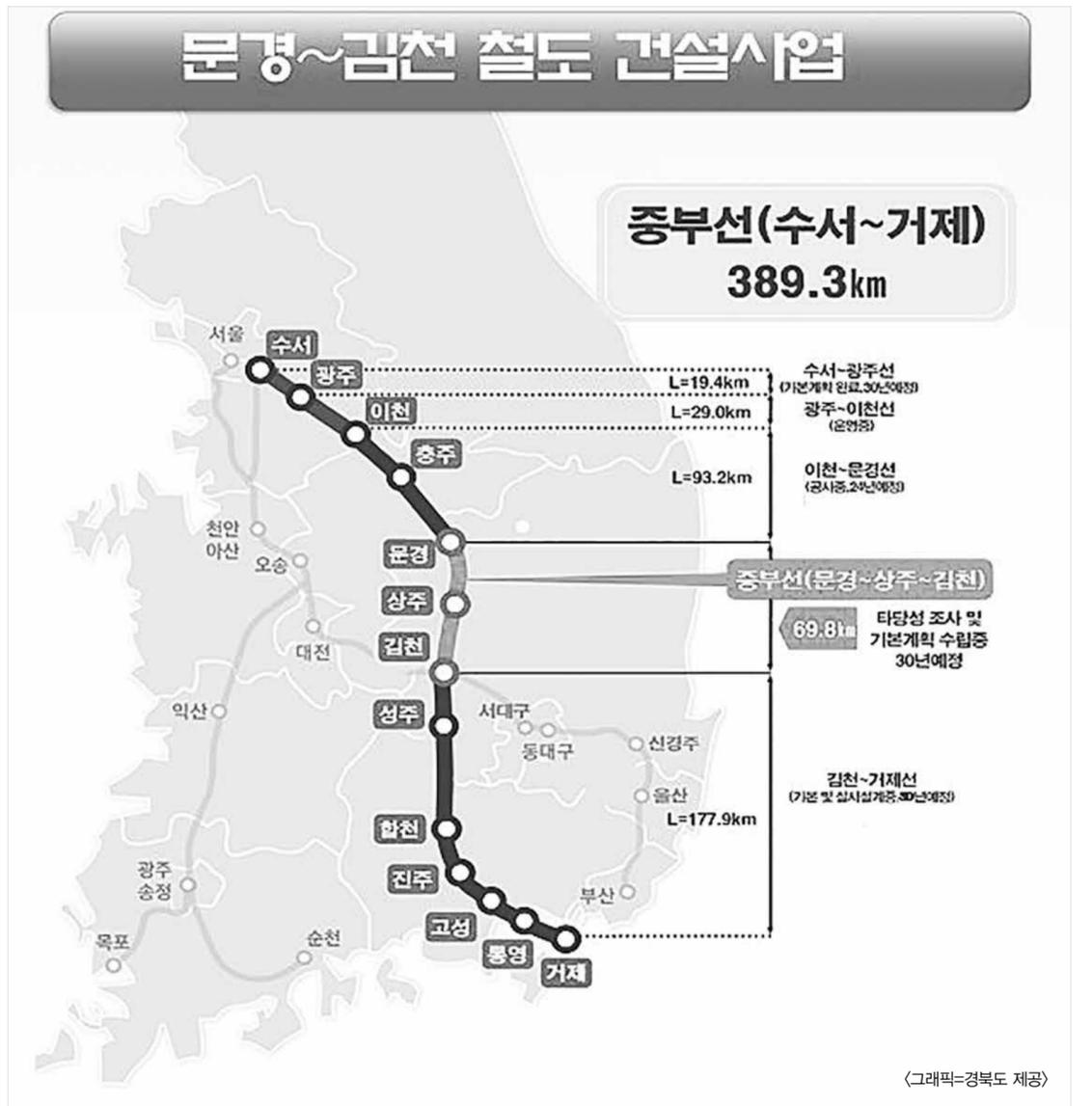
이어 “그럼 상심하고 공포에 절어 있는 보수들이 열광하고 역시 믿을 건 원조 보수, 선명 보수 홍준표! 뿐이야라고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또 ‘조국수홍’ 모드로 오락가락 저급한 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윤석열 정부 망했다고 잔치라도 난 듯 경망스러운 좌파 2중대 짓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수의 운명을 맡길 수 있나”며 홍 시장을 밀어냈다.

그러면서 “송영길을 풀어달라니? (송 전 대표가 만든 소나무당으로 출마한) 변희재를 책사로 쓸 생각이냐”며 각을 세운 뒤 “사람은 변하지 않는 법”이라면서 ‘73년생…’에서 분량이 넘쳐 빼버린 홍 시장 비판 부분을 소개했다.

초고에서 심 교수는 △19대 대선 때 홍준표 득표율 24%는 진보수 △따라서 홍준표는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들을 붙잡는 전략을 구사해야 했다 △그러나 유승민-이준석이 쳐 놓은 정치적 밧을 덤석 물어 버렸다 △보수 지지층 바람과는 정반대로 조국을 옹호했다 △윤석열이라는 거물 신인이 영입되자 못된 시어머니 시누이 마인드로 뒷세를 부렸다 △정치 신인에게 대권을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다는 등 홍 시장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조미경 기자



(그래픽=경북도 제공)

경북교육청, 학습자 중심 교육 총력 지원

개정 교육과정 내년 적용 학생 미래변화 대응 높여

경북교육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교육적 성장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함양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화 △교실 수업과 평가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경북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어려움을 해소,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교육청은 새 학년 시작 전인 지난 2월 일반계 고교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교육과정, 수업, 평가, 진학 등 각 영역에서 변화되는 점을 안내했다.

지난달 초에는 학교별로 설명회 내용을 학교 자체 연수로 전 교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53명도 구성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이해를 돕는 ‘고교 교육과정 개정카드뉴스’도 제작해 배포한다.

카드뉴스에는 개정의 핵심 내용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 정리돼 있다.

교육청은 다음달 지원단과 관리자, 업무 담당자 연수를 하고, 6월에는 지원단을 대상으로 상담방법 연수, 9월에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교원 연수를 해 교원의 역량을 높인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으로 학생들의 미래 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내년 SOC사업 국비 5550억 지원 요청

건의 사업 지역 성장 기반 지역균형발전 책임질 사업

경북도가 16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한 국토교통예산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국토교통분야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추진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예산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건의된 사업은 △문경-김천 철도 건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철도(서대구-의성) 건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경북시대 성장 기반이 될 주요 SOC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조4455억원이며 내년 국비 건의액은 5550억원 규모다.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중부내륙(이천-문경)과 남부내륙(김천-거제) 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수도권 접근성을 높여 수도권과 중부내륙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핵심 철도망으로 경북도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300억원을 요구했다.

철도 접근성이 낮은 낙후지역의 균형성장을 촉진시키고자 추진되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에 대해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착공을 위한 국비 4000억원을 건의했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환동해권 지역성장의 기반이 될 사업으로 지난해 1259억원 및 올해 1350억원의 설계비가 반영돼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도는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와

공사 조기착수를 위해 국비 1200억원 반영을 제안했다.

도는 2030년 통합신공항의 개항에 맞춰 유동 인구 및 물자 수송 증가에 대비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철도(서대구-의성) 건설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과 국비 30억원을 건의했다.

취약한 동서축 도로교통망 확충과 서남부권 통합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올 상반기 내에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국비 200억원을 요청했다.

배우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책임질 필수사업들”이라며 “적기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교육청 21일까지 ‘안전주간’ 운영

안전교육·시설 점검 등 실시

대구시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국민안전의 날(4·16)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안전주간’을 운영한다.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안전주간 동안 대구교육청 소속 학교와 기관은 재난·재해 대비 안전교육,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

을 실시한다.

16일 강은희 교육감이 대구교육노동강수련원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래프팅, 익수자 구조법 등 수상 안전 활동과 심폐소생술, 지진 체험, 자연기주행 보호 장비 착용, 이동 안전 체험활동 등을 점검했다.

강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다시는 이런 쓰라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음주측정 거부 잡고보니 현직 경찰관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중부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이 현행범 체포됐다.

A경감은 이날 오전 1시께 경북 경산시 중앙동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만 운전했으며, 동승자가 아파트까지 승용차를 몰았다”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동승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단속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 후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 기업 45% “상반기 투자, 계획보다 축소·지연”

자동차, 기계·장비 분야 응답 높아
원인은 수요 부진 27.7%로 최대
저리 대출 확대 규제 개혁 지속

대구 기업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올해 상반기 투자가 계획보다 축소됐다고 밝혔다.

16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지역 제조업 160개 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투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45%가 계획보다 축소·지연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확대하고 있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기계·장비 분야에서 ‘축

소·지연’ 응답비율이 높았다.

투자가 축소되거나 보수적 입장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고 증가 등 수요 부진’이 27.7%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등 자금 조달 부담’과 ‘원자재가 등 생산 비용 증가’가 각각 23.2%를 차지했다.

전체 투자에서 신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 등 혁신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 33.8%, ‘20~30%’ 22.5%, ‘30~40%’ 10.6%로 조사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기업들은 신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이 53.8%, ‘현금 흐름 등 이용 가능 자금 상황’(16.8%), ‘경쟁업체간 시장 상황’(14.4%), ‘기술 개발과 혁신 필요성’(10.6%) 순이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은 유가, 원자재, 원달러 환율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이자 부담, 채산성 악화로 당초 계획에 비해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는 미래 성장의 토대가 되는 만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시행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저리 대출 지원 확대, 과감한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음식점 영업주 친절·청결 교육

예천군은 15일 오후 군청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100명을 대상으로 친절·청결 교육을 실시했다.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2024 예천군 총축제와 현대양궁월드컵대회 등 각종 행사 대비 △ 영업주 친절 의식 고취 및 고객 응대 요령 △ 출입구, 카운터 등 영업장 정리 정돈 △ 종사

자 개인위생 및 식중독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미소·친절·청결 예천사랑 운동도 병행했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와 친절한 손님맞이로 2024 예천활축제 및 현대양궁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싶고, 시 찾고 싶은 예천을 만들자"고 말했다.

구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육아 유연근무 지원 업체 운전자금 확대 시행 탄력

구미시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자보전) 한도 확대 항목에 육아 유연근무 지원 업체를 추가 확대 시행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업 대출 시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근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구미시 또한 육아 유연근무 지원 업체에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육아 유연근무 지원 업체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 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이력이 있는 업체이다.

해당 업체는 고용보험 사이트(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와 업체 자체 발급(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하는 업체는 1년간 한도 최대 5억 원(매출액별 차등)까지, 지원금리는 일반 2.5%, 우대 3%이며, 관내 주소 근로자 전입률 70% 이상(대표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3%를 지원한다.

시는 육아 유연근무 지원 업체 우대로 기업 경영난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조성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 운전자금은 새달 2~9일까지 접수한다.

경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https://www.gfund.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https://www.gumi.go.kr/biz/)에서 4월 말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청 기업투자과(480-6133)로 하면 된다. 이은진 기자

상주 감 유효성분 분석 연구용역 보고회

상주부터 개발 상주 감 유효성분 분석 연구용역

상주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S-Beauty(상주뷰티) 개발을 위한 상주 감 유효성분 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상주 감의 주요 유효성분을 분석, 케르세틴(quercetin) 성분을 확인 △피부미용 상품을 개발한 후 인체적용시험 과정 보고 △제품 개발 이후 감을 활용한 안전한 미용 가능성

신소재 개발 △뽕은 감 농가의 이익 창출 등의 기대효과 등을 보고했다.

뽕은 감 추출물 함유 마스크팩 제품을 적용, 피부의 수분량·유분량 증가, 모공 축소, 미백효과,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노화피부나 건성 피부에 적합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강영석 시장은 "상주의 대표 작물인 감의 우수 성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뽕은 감의 유효성분을 마스크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예천박물관, 해평윤씨 오방부사직공파 유물기증식

고서·고문서 및 민속품 800여 점 기증 받아...



예천군 예천박물관은 16일 예천읍 청북리에 거주하는 해평윤씨 오방부사직공파 유물기증식을 가졌다.

해평윤씨 오방부사직공파는 예천읍 청북리에 8대에 걸쳐 살아왔다.

고서 188건 343점, 고문서 307건 418점과 문

중에서 건립한 침석정(沈石亭)에 걸려 있던 현판 등 민속품 19건 24점 총 514건 785점을 모두 예천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증받은 '이광사 필첩(圓嶠書訣)'은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이광사는 원고서결(圓嶠書訣)등을 저술하고 조선 서예사의 이론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인물로 두남집(斗南集),원교집선(圓嶠集選)등의 저술을 남겼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해평윤씨 오방부사직공파가 예천읍 청북리에 대대로 살아오면서 예천 지역 문화 발전에 힘써온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군수는 "소중하게 보관해 오던 유물을 예천 박물관에 기증해 줘서 감사하다 기증한 유물은 안전하게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예천지역 역사자료로서 연구, 전시, 교육을 통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명욱 기자

청춘은 계속 된다, 구미시 청춘대학 개강

작년 까지 총 425명 수료생 배출 매주 화요일 21회 교육과정 운영

구미시는 16일 강동문화복지회관 봉두홀에서 청춘대학 수강생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구미시 청춘대학 개강식을 열었다.

개강식은 구미시립합창단의 '섬마을선생님', 난감하네' 공연으로 즐거운 시작을 알렸다.

시립무용단은 '꽃춤, 신부채춤 등을 선배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 '꽃피는 인생교실'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청춘대학은 관내 75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

로, 161명의 수강생이 입학해 16~10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21회의 교육과정으로 5개월 동안 운영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대학은 2019년 개설해 2023년까지 총 42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인문, 교양,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생활을 통해 일상생활의 활력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오 문화예술회관장은 "강동문화복지회관은 26개 정기과정 시간강좌, 도서실·헬스장·체육관 운영, 문화예술공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청춘대학을 통해 노후생활에 건강과 활력의 큰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경산시, 취약계층 건강한 생활 유지 앞장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는 16일 세명병원 강당에서 국제로타리3700지구(총재 정익균)와 세명병원(이사장 최영욱)과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로타리클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300명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5,4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 및 신청접수 등

행정적 지원을, 세명병원은 경산시가 추천한 대상자에게 순차적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대상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사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추천

을 받아 300명을 선정했다.

업무협약과 동시 16~7월까지 예방접종을 한다. 정익균 국제로타리3700지구 총재는 "이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역의 의료사각지대 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신경은 기자

상주시,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 한 몫

올품, 온누리상품권 1억원 구매 약정...



상주시는 지난 15일 상주시민의 방에서 (주)올품(대표 강기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잡고 온누리상품권 1억 원의 구매협약식을 갖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를 진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지류형 구매 시 5%, 카드형 구매 시 10% 할인

받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올품(대표 강기철)은 신선 닭고기 통닭 및

신선 절단육을 생산하는 업체로 연간 9000만 수를 생산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닭고기 나눔 행사 및 상주연단 은행에 연탄 후원 행사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주)올품 강기철 대표이사는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뜻깊다"라고 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올품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직면하는 지역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에 나서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청춘은 계속 된다, 구미시 청춘대학 개강

4월20일, 매직쇼·과학체험부스 날말퀴즈 등 즐거운 과학축제

구미시는 오는 20일 과학의 달과 따뜻한 봄을 맞아 구미과학관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구미가 땡기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연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과학문화행사로, 지난해 900여 명이 참여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과학의 날(4월21일)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백사와 함께 하는 사이언스 매직쇼 △과학체험부스 △과학관 날말퀴즈 △스텝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교육적이고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행사를 제공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마련한 과학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 미래 과학자로서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새달 4일에는 구미과학관 분관인 구미어린이과학체험관(양포도서관 내 위치)에서 '과학으로 꿈꾸는 어린이 세상'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은진 기자

세계에 울리는 K-전통문화!



중방농악보존회는 11.13일 태국 송크란 축제에서 전통문화 예술 공연을 펼쳤다. 공연은 태국 송크란 축제 추진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총 8개국의 전통문화 예술 공연팀이 참여, 중방농악보존회는 흥겨운 농악과 사물놀이 공연으로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승호 회장은 "전통 농악은 우리 조상들의 삶과 일이 담긴 대표적인 종합예술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국 송크란 축제에 중방농악보존회가 한국 대표로 초청되어 우리 전통문화 예술 공연을 선보여 기쁘다. 앞으로도 중방농악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주시 노점상인연합회 장학금 300만원 기탁

경주시 노점상인연합회는 미래 경주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육성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재)경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 경주시 노점상인연합회는 회원들의 권익보

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2000년에 발족한 노점상인들의 친목단체인 회원수는 약 30명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2040만 9000원을 기탁했다.

최영규 회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도움이 절실한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키워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감포읍 나눔 공간 '해파랑' 공간 문 열었다

어려운 주민 필요시 이용 후원 물품 나누는 공간

경주시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서삼란)는 지난 15일 감포읍 행정복지센터(읍장 김민대)에서 '해파랑 공간' 개소식을 가졌다. 감포읍 '해파랑 공간'은 마음이 있는 이는 언

제든 기탁하고, 어려운 주민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후원물품 나눔 공간으로 취약계층 위기 예방과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파랑 공간' 운영을 추진하며 '소중한 당신, 행복한 나라'는 나눔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를 소중하게 생각해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기탁자의 마음과 후원자의 정성을

소중히 생각하며, 행복하게 사용하는 이용자의 마음, 서로가 존중하는 자세를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해파랑 공간은 지난 2월부터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 계획해 추진해왔으며, 감포읍 행정복지센터 내 장소 리모델링과 홍보 및 물품 모집 활동을 거쳐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그간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파랑 북

지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결실을 맺어 지역 내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한국장애인복지환경연합회로부터 사전 물품 기탁이 이뤄져 더욱 풍성한 출발이 될 수 있었다. 서삼란 민간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존중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우리 지역에 이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 무엇보다 의미 있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대 감포읍장은 "해파랑 공간이 우리의 바람대로 원활하게 운영·발전돼 우리 경주시 감포읍이 나눔의 메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파랑 공간은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 및 위원들의 직접적 참여로 민간 주도형 후원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4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비전 선포

6년차 공모사업 시행...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경주시가 16일 오후 시청 앞전홀에서 '2024 주민(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주낙영 경주시장을 포함해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34개팀 주민 대표 150여명이 참석해 사업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앞서 2019년부터 시작한 경주시 주민(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주민조직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사업의 목적이다. 1부는 △경과보고영상 △비전선언 및 선포 △공모사업추진 업무협약체결 △전문가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특목콘서트로 △공동체 및 회계교육 △질의응답으로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지역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창출하는 선언문 비전과 핵심 가치 실천을 위한 참여와 헌신을 다짐하며,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도 함께 가졌다.

경주시,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계몽운동 활화산

APEC 정상회의 반드시 유치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응원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경주시립도서관은 지난 12일 제60회 도서관 주간 행사를 진행하면서 2025 APEC 경주유치 응원 계몽운동을 했다. 어린이도서관 회원들과 시립도서관 직원들은 황성공원과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및 리플릿을 나눠주며 경주가 APEC 정상회의의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했다. 시립도서관 1층 로비에 마련된 메모지에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기원 메시지 작성 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최자숙 시립도서관장은 "계몽운동에 동참한 어린이도서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가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지역건축사회와 지난 15일 간담회를 열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계몽운동을 했다. 한상식 건축허가과장은 "경주지역건축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상호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해 준 이사회회회장 및 회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주시 천북면 청년회도 지난 지난 14일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기원하며 천북면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천북면 청년회는 평소 마을 발전을 위해 각종 굿웃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이날 청년회장을 비롯한 회원 10여 명은 모아리에서 동산리로 이어지는 모아동산길 일원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이재희 청년회장은 "APEC 정상회의의 현실을 사들고 깨끗한 천북면 만들기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항상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철우 천북면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순선수범해 지역을 위해 봉사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경주 동궁원, 식물원 1·2관 재개관...

봄꽃 만개 관광객 발길 유혹 캐릭터 포토존 설치 완료...



경주 동궁원이 식물원 1·2관 내부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재개관 한다.

동궁원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4억3000만원 예산을 들여 식물원 내부에 보온·차광스크린을 교체하고 관수·보온시설을 보수해 원활한 식물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달 동궁원 캐릭터 동궁과 동비 포토존(조형물)도 완공해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장소를 마련했다. 여기에 동궁원 입터 또는 화단 곳곳에 봄을 만끽할 수 있는 톨립을 식재해 관광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전국 첫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

경주시가 제54회 지구의 날에 맞춰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을 오는 22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개최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전략수립 심포지엄, 시민원탁회의, 시민실천

운동 추진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경주 만들기 매진해 왔다.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실천'에 방점을 두고, 생활속 실천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실천

수칙 1만부를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서명 페이지를 구축하면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관내 17개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가지속발전가능목표 이행 협약'을 체결하며 국가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를 각 사회단체와 매칭해 선도적으로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

경상북도 |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 2025년 APEC 정상회의 |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 Golden City Gyeongju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최기문 영천시장은 17일 오전 11시 영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영천한마을, 아름다운 한옥단지 속 야외결혼식 3호 부부 탄생

영천한마을에서 지난 13일 특별한 야외결혼식이 열렸다.

이번 결혼식은 두 사람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꿈꾸는 신랑과 신부의 신청으로 아름다운 한옥단지 속에서 많은 하객과 방문객들의 축복 속에서 진행됐다.

최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실용적이면서 개인 취향에 맞게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야외결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공단은 한의마을을 개방해 야외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이날 행사를 위해 야외결혼식에 필요한 전기시설과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차장 안내 등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다.

양병태 이사장은 "관내 공공시설물을 개방한 야외결혼식장 운영으로, 예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영천의 대표 야외 공공예식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천한마을은 사상제철 진단과 족욕 및 비누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한방테마거리와 숙박시설인 한옥체험관 등의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최은하 기자



성주군, 4월 24일 행사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성주군 보건소는 오는 4월 24일 혈액 수급난에 도움을 보태고자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을 실시한다.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성주군 보건소 전정에 헌혈차량을 배치해 운영(점심시간 11:30~13:00 제외) 예정이다.

헌혈을 희망하는 만 16세 이상 69세 미만(65세 이상은 60세~64세까지 헌혈유형제한자 포함)의 건강한 군민이면 누구나 간이검사 후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성주군 보건소 관계자는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활동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혈액 수급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혈 참여 관련 사항은 성주군 보건소 ☎054-930-8108로 문의하면 된다.

도재훈 기자

이남철 고령군수, 저출생 극복 성금 5백만원 기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령위해 정책발굴에 모든 행정력 총 동원

이남철 고령군수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통큰 기부를 펼쳐 저출생과의 전쟁에 불을 붙였다. 이 군수는 16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5백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기부한 성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 1월 18일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출생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온국민 공감대 조성 및 동참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원이상 기부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

행하고 있다. 이에 고령군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홍보에 힘쓰고 있다.

고령군에서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어 다자녀가정 양육 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 매입임대주택공급지원,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출생 극복 관련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저출생 문제는 나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소멸의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문제여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령군이 경북도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령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영천 청제, 올해 첫 통수 고유제 거행

올해 농사 풍년 기원

영천시는 지난 15일 금호읍 구암리 소재 경북도 기념물 영천 청제 못둑 위에서 올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첫 통수에 대한 고유제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고유제는 국가와 사회, 왕실 및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집안의 어른, 문중의 시조, 관련 신령에게 그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뜻한다.

청제에서 거행된 고유제는 통수라는 사회상 농

사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로 인식됨으로써 행해졌다.

통수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풍년의 기원을 담아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처음 개방해 전답에 흘러보내는, 한 해 농사의 시작점이자 예로부터 마을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였다.

제례는 초헌례로 시작해 아헌례, 종헌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초헌관으로 서명한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 아헌관과 종헌관은 마을의 주민들이 맡아

행함으로써 관민이 합심해 올해 구암리 일대의 풍년을 기원했다. 이날 통수 고유제에는 우여자영천 시의회 부의장, 이영우 의원을 비롯해 관련 마을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함께해 흘러내려갈 청제의 용수처럼 올 한 해 농사도 함하게 시작해 풍년으로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마을 주민들의 농업경영에 해가 되지 않도록 청제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의성군, 제1회 추경예산 1000억 증액 편성

2024년도 총예산 규모는 7760억원

의성군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정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을 포함한 2024년도 총예산 규모는 776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34억원이 증가한 7220억원, 특별회계는 66억원이 증가한 540억원

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확실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거주환경 개선과 재난 대비 안전예산 확보에 노력했으며 저출생 극복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또한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위한 △도시경관개선 18억원, △상수도 시설확충사업 21억원, △소하천정비사업 26

억원, △수리시설개보수 19억원, △재해예방스마트시스템설치 23억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지원 5억원, △다자녀장학금지원 2억원, △영유아영양제지원 및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0.7억원, △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 및 청년월세지원사업 0.7억원,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의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조성 60억원, △의성위라밸리복합문화센터건립 30억원,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GMP구축 23억원 등을 편성했다. 군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군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박재성 기자

영주시 풍기인건 홍보전시관, 새로운 콘텐츠로 재개관

체험 및 실감형 콘텐츠 '완벽'

개관 후 16년 만의 새 단장

영주시 풍기인건 홍보전시관이 새롭게 단장해 16일 문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개관한 홍보전시관은 그동안 지역의 대표 특산명품인 풍기인건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시는 홍보전시관이 개관 후 16년이 지나 일부 전시시설이 노후화되고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람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체험 및 실감형 전시를 통해 풍기인건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이번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새 단장을 마친 홍보전시관은 우수 동선을 따라 풍기인건 관련 각종 정보와 체험 프로그램이 조화롭게 구성된 전시 공간으로 연출됐다.

도입부에는 150인치 스크린과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풍기인건을 소개하고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는 인건 제작 과정을 안내하고 과거와 현대 직기



를 풍기인건 원단과 함께 실물 전시했다.

특히 전시관 중간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풍기인건 패션디자이너가 돼보는 체험형 콘텐츠 '라이브 스케치존'을 배치했다.

홍보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풍기인건으로 만든 간단한 소품(양말, 도시, 손수건 등)을 현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풍기인건은 가볍고 시원하며 착용 시 몸에 붙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상쾌한 촉감으로 피부에도 좋아 '냉장고 섬유'라고 불리며 무더운 여름 최고의 소재로 손꼽힌다.

전성기 기자

2024년 경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 실시

영천시는 오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관내 888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경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경북도가 주관하고 영천시가 실시하는 본 조사는 1997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의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조사(survey.k-stat.

의성군의회,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제321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16일 의성군의회 주관으로 의성읍 운누리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의성군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월례회는 경북 18개 시군의회 의장과 의성군의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함께 했으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의 개회사

영주시,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안심가맹점 7개소 지정

영주시는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7개소를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하고 지난 11일, 16일 양일간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지정된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새오름 △대촌교회 △미소머금 △한곡안전돌봄 서비스협회 영주지부 △효통합계사센터 등 5개소다.

이들 기관 및 업체는 구성원 모두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며 지지하는 동반자 역할을 통해 치매 극복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꽃담플라워와 동백카츠는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됐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파트너, 치매체크 엠, 치매에방 수칙과 같은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매장 안에 비치하고 치매 환자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및 임시보호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영주시 치매안심센터(☎054-639-3908)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기 기자

영천시의회, 축사악취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개회

영천시의회 축사악취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3월 축사악취 특위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축사악취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의 특위 활동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작성·의결했다.

활동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집행부의 업무추진사항 보고 청취 후, 지역 내 축사악취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의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타 지역의 악취 저감 우수사례도 견학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에서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은하 기자

go.kr/gtb2024i)를 병행해 조사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등 48개 문항으로 각 분야에 대한 만족도 및 시민들의 주관적인 의식 등 사회적 관심사에 관해 조사한다.

본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는 내년 10월경에 공표할 예정이며 사회 변화 예측 및 지역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사회조사와 관련된 질이나 문의사항은 영천시 통계상황실(☎054-330-6901)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최은하 기자

를 시작으로 감사패 및 기념품 전달,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321차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는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차기 월례회 개최, 지역축제 홍보 등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의성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북지역 각종 현안문제와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진



청송군의회, 2024년 제3차 의원간담회 개최

청송군의회는 2024년 4월 15일 10시 30분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갖고 군정 주요 사업과 현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4년 하반기 청송군 기구 및 조직 개편계획(총무과) △꽃가루생산단지 관련 부지 매입비 및 사용료 지급(농정과) △청송군 산불방지지원센터 및 예비군 3개 중대 등 사무실 설치공사(대기실 및 보관장고 포함)(안전정책과)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증축공사 계획(보건의료원) △건강제조경연대회 도 대회 확대 유치 검토(보건의료원)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직제신설된 공공디자인팀의 전문성 강화, 꽃가루생산단지 부지 매입 대상 중 묘지 지목에 대한 적절한 대응, 산불진화대와 의용소방대원들의 충분한 휴식공간 확보 등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관태준 의장은 직제신설된 공공디자인팀의 전문성 확립, 꽃가루생산단지 부지 매입 대상 중 묘지 지목에 대한 적절한 대응, 산불진화대와 의용소방대원들의 충분한 휴식공간 확보 등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산불을 포함한 화재 발생 시 의원들에게 신속하게 보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윤병모 기자

청도군보건소-청도대남병원, 원격협진 업무협약 체결

청도군은 지난 15일 청도군보건소와 청도대남병원 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도군보건소와 청도대남병원은 이달까지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월 시범 운영 후 6월부터 본격적인 의료취약지 원격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도군 관내 보건지소(8개소)·보건진료소(10개소)와 청도대남병원을 잇는 원격 장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대상자는 청도대남병원 재진환자,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환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거주지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청도대남병원과 직접 연결되는 원격협진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전문의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남중구 보건소장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청도대남병원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별의별 이야기, 영양' 특화관광지 조성 박차

16일 문체부 24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선정 지역관광사업비 120억원 확보 관광자원 개발에 청신호 켜져

영양군이 '별의별 이야기, 영양'사업이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돼 관광자원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공모에 '별의별 이야기, 영양'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역의 특화 소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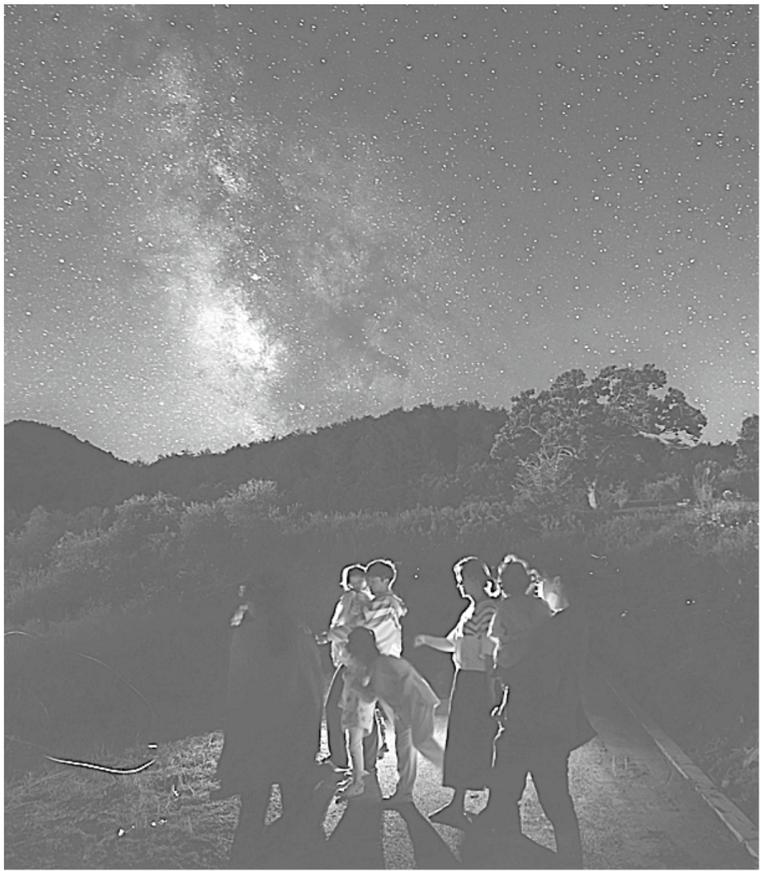
군은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이라는 특화자원을 활용한 '별의별 이야기, 영양'사업을 공모에 신청했다. 경북도 자체 심사와 문체부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전국 시군구에서 3개소를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본 사업에는 금년부터 '28년까지 5년동안 국비 60억원과 지방비 60억원 등 총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핵심사업, △연계협력사업, △관리운영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핵심사업
반딧불이 전문대 일원을 밤하늘에 특화된 통일된 컨셉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천체투영관인 '오로라돔'설치,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야외 광장인 '별의 정원'조성, 관광객 커뮤니티 공간인 '별별 스페이스'를 개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계협력사업
금년에 영양밤하늘보호공원 내에 준공된 SK텔레콤 무인전문대를 활용한 'SK텔레콤 협력사업', 아웃도어 브랜드와 함께하는 '캠핑 페스티벌',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등이 있다. 군은 이 사업들을 통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특화자원의 활용도와 파급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운영사업
민관 협력과 소득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대 구축을 위해 '별의별 마케팅'인 양성, '별의별 밤하늘 해설사'양성사업 등을 반영했다. 전용 홈페이지 개설과 굿즈 상품 제작 등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본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일대를 대한민국 유일의 '밤하늘



특화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이 가진 특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영양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은 지난 2015년에 국제밤하늘협회(IDA,미국)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반딧불이전문대, 반딧불이생태공원, 반딧불이생태소, 캠핑장과 펜션 등 다양한 관광컨텐츠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권윤동 기자

김광열 영덕군수, K-전통의학 국제협력 위해 몽골행

몽골 교육과학부, 울란바토르시, 모노스 그룹 등과 다자간 MOU 체결



김광열 영덕군수가 영덕 이웃사촌마을 사업 내 K-한방 에듀팜 조성 및 전통의학 실크로드 센터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

경북형 전통의학의 국제공동연구와 산업교류를 협의하기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 이번 일정은 지난 2월 26일 경북도청 국제관에서 열린 국제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당시 경상북도 영덕군은 대구한의대학교, 주한몽골대사관, 몽골 10대 기업인 모노스 그룹 등과 함께 경북형 전통의학의 국제공동연구와 산업교류를 위해 협의의 바 있다.

김 군수는 이번 일정 첫날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 하인성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 등과 함께 모노스 그룹 후원바타르 회장, 모노스약학대학교 탐바아라 총장과의 만찬 자리에 참석해 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함께 몽골 교육과학부 청사에서 앤호갈랑 장관을 예방하고 경상북도, 영덕군, 대구한의대, 몽골 교육과학부, 모노스그룹, 몽골약학대 등이 함께 전통의

학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자간 MOU에 이어 울란바토르시와도 MOU를 체결하게 된다.

김 군수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전통의학 약재 세포배양 기술을 적용한 K-한방 에듀팜 설립, 전통의학 실크로드센터 구축 등 전통의학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한국과 몽골이 공유하는 전통과 학문을 바탕으로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힘써 지역 내 K-한방 에듀팜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짐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청송군, '8282 민원처리'1분기 운영 결과 보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 지원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청송



산소카페 청송군에는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 민원을 처리해주는 이 있다.

전동 교체, 수도 누수 등 생활 곳곳에 있는 사소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든든한 아빠 같은 존재다.

바로 지난 2023년 1월 처음 선보인 '8282 민원처리' 서비스이다. '8282 민원처리 서비스'는 청송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가구가 연 4회 이용할 수 있다. 지원범위는 반집, 창고, 상가 등을 제외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한다. 취약가구(65세 이상 단독·부부, 차상위·기초생

활수급자 등의 경우 회당 5만원 이하의 재료를 지원해주며, 이외의 일반가구는 직접 재료 준비 후에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1/4분기 운영 결과 808가구 173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96.8%인 782가구 169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기동반이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전문 업체에 직접 인계해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령층 및 기초·차상위 등 소외 계층이 전체 접수율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살던 소외계층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구 수 대비 이용률은 8개 읍면 중 파천면이 12%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읍면에서도 모두 골고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8282 민원처리'는 지난 3월 청송군 시니어클럽, 생활지원사 교육 현장 등을 방문해서 사업 홍보를 했다.

앞으로 청송군민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8282 민원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울진군 산불방지 총력대응... 상처 딛고 재난 대응 더욱 강화

울진군은 지난날 산불을 교훈삼아 군민모두가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고비를 만난다.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실패를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곳곳까지 맞서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그 위기를 또 다른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울진군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많은 피해와 상처를 남겼고 그 복구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봄철 산불 기간 총력 대응
산불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예방이다. 이에 울진군은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산불 특별대책기간'이 공고(산림청 공고 제2024-139호)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대응하고 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산불감시체계 고도화 및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대비 체계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신속한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한 산불 ICT 플랫폼 활용(6개소-24채널), 무인감시 드론스테이션 운영(금강송면 소광리 일원) 등 인력만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다채널 CCTV 영상을 AI를 활용하여 분석하게 함으로써 산불감시체계를 고도화했다.

아울러 일몰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드론스테이션의 운영시간 조정(12시~20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야간 배치(13시~21시) 등 신속한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를 확립했다.

■대형산불 대응체계 강화
울진군은 지난 산불을 경험하며 대형산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에 지난 5월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울진소방서, 울진경찰서, 대구지방기상청, 육군 5312부대, 한국전력공사 울진지사, 울진군산림조합 등 8개 기관과 함께 봄철 대형산불 대비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대응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28일에는 경북도 소방본부, 부산국도청과 119산불 특수대응단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정수 기자



2024 대구광역시일보

女人天下 챔피언십



5월 20일 (월) 2부 순차플레이

- 팀 : 20팀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 참가비 : 27만원
- 장 소 :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시일보 주관 경주보성마트

3월 21일 ~ 4월 30일(입금자우선)

- ※입금 후 환불 불가 (선수교체 가능)
- ▣ 참가자격 : 아마추어
- ▣ 참가비 : 27만원 (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 김영숙) 대구은행 508-11-147821-4

-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담당 010-4473-4473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특별 행운상

- 임플란트 진료권
- 한의원 상품권
- 성형외과 시술권
- 호반오리 무료시식권
- 펜션 숙박할인권
- 골프장 그린피할인권

메달리스트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성형외과 진료권 20만원

신페리오

- 우승 150만원 (백화점상품권)
- 준우승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 3위 70만원 (백화점상품권)
- 롱기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니어리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만찬장소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층 대식당